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정책적 시사점

장현수* | 신용보증기금 대리



1.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원인
2. 과거의 유가 변동 사례
3. 유가하락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유가하락의 국내 영향
5. 정책적 시사점

* E-mail : 장현수(hsjang@kodit.co.kr)

** 본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이며 신용보증기금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정책적 시사점

1.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원인

국제유가 동향

□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전환

- 2014년 상반기까지 배럴당 100\$ 이상을 유지하던 국제유가가 하반기부터 급락세를 나타내며 2015년 1월에는 배럴당 50\$ 이하로 급락
 - 2014년 2분기 말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8.4\$에서 2015년 1월말 배럴당 46.34\$로 하락하는 등 7개월만에 50% 이상 하락
 - 배럴당 46.34\$는 2008년 12월 이후 최저 수치

〈국제유가 추이 (2008~2015)〉



* 출처 : Bloomberg

유가하락의 원인

□ 국제유가 하락은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

- (공급측 요인)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원유공급 안정, 미국과 캐나다의 셰일오일 생산의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
 - 특히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2년부터 연평균 매일 300만 배럴 이상 증가하면서 원유 공급량 확대를 주도
- (수요측 요인)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및 유로존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
 - 유로존의 경우 2014년 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신흥국* 또한 전년대비 감소한 4.5%의 성장률에 머물러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력 증대
- *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등 16개 국가 (IMF, 2014)
- (기타 요인) 달러화 강세와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정세 완화도 유가 하락에 영향
 - 석유결제에 쓰이는 달러화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산유국인 이라크, 리비아 및 우크라이나의 정세 완화로 원유 생산 재개

〈북미 및 비OPEC 석유생산 규모 (2012~2014)〉

(단위: 백만 배럴/일)

	2012년 (A)	2013년	2014년 (B)	A-B
북미	16.72	18.16	19.86	3.14
OPEC	31.13	30.23	30.07	△1.06
비OPEC	52.81	54.20	56.23	3.42

* 출처 : OPEC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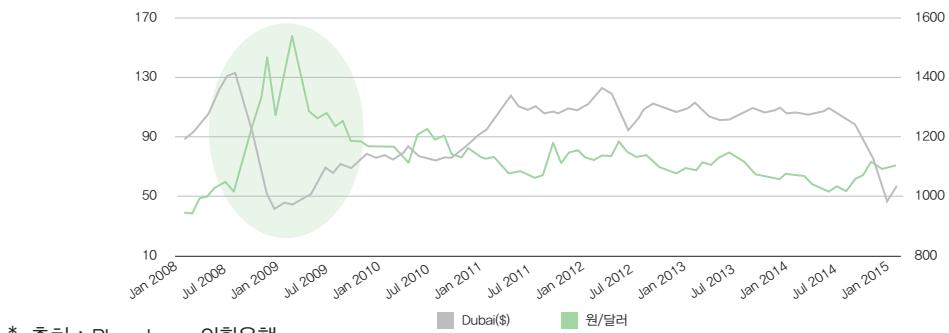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상)
세계	3.4	3.3	3.1	3.5
선진국	1.2	1.4	1.8	2.1
신흥국	5.1	4.7	4.5	4.9

* 출처 : IMF

* 참고 : 달러와 유가와의 관계*

- 달러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환율경로, 수요공급경로, 금융시장 경로로 나눌 수 있음
 - (환율경로) 유가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치가 상승(하락)하면 같은 양의 원유를 구입할 때 더 적은(많은) 달러가 필요
 - (수요경로) 달러강세(약세)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자국통화 표시 유가의 상승(하락)으로 이어져 원유수요감소(증가) 및 유가하락(상승)을 초래
 - (공급경로) 달러강세(약세)는 생산국의 입장에서 원유수출에 대한 자국통화 표시 수익의 증가(감소)를 가져와 공급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
 - (금융시장경로) 달러강세는 석유선물시장 등 국제상품시장에서 투기자금을 대거 이탈하게 만들어 국제유가를 하락시킴
- * 출처 : 「국제유가 vs. 美 달러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 2008년 이후 달러와 유가 간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한 모습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2009년) 당시에는 석유수요 감소와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선호 급증으로 매우 높은 음(-)의 상관관계 시현

〈달러와 유가와의 상관관계 (2008~2015)〉



* 출처 : Bloomberg, 외환은행

2. 과거의 유가 변동 사례

□ 제 1차 오일쇼크 (1973~1974)

- 1973년 중동전쟁 발발 이후 아랍 6개 석유수출국이 원유고시 가격을 17% 인상하고 매월 원유생산량을 전월 대비 5% 감산하기로 결정
 - 정치적인 목적으로 석유 생산 및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절
- 이후 3개월만에 원유가격이 4배로 폭등 (두바이유 2.8\$ → 11.0\$)
 - 전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한국의 경우에도 물가상승률 폭등(3.5% → 24.8%), 성장률 감소(12.3% → 7.4%)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

□ 제 2차 오일쇼크 (1978~1980)

- 1978년 이란의 이슬람혁명 이후 호메이니는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석유 수출을 전면적으로 중단
 - 이후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무기화 방침으로 지속적으로 유가가 급등
-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유가격이 3배로 폭등 (두바이유 12.9\$ → 35.8\$)
 - 주요 선진국들의 피해는 1차 오일쇼크 때보다 크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유가 급등에 따른 달러 유동성 회수를 위해 정책금리를 21%로 인상
 - 국내는 10.26 사태 등 정치적 혼란과 석유파동이 겹치면서 마이너스 성장(1980년 △1.7%)을 기록하는 등 1차 오일쇼크보다 상대적으로 큰 타격

〈오일쇼크 전후 두바이유 가격 (1973~1983)〉

(단위: \$/배럴)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2.8	11.0	10.4	11.6	12.6	12.9	29.8	35.8	34.3	31.8	28.7

* 출처 : OPEC

□ 글로벌 금융위기 (2008)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수요 급감에 따라 7개월만에 유가가 급락
 - 미국 등 선진국의 주택경기 부진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및 신흥국의 내수·수출 부진으로 세계 원유수요가 급격히 감소
- 2008년 7월 배럴당 131.22\$(두바이유 기준)을 기록한 유가가 5개월만에 배럴당 41\$를 기록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가 원유생산 감소폭을 상회하여 초과공급을 유발함에 따라 단기간에 유가가 1/3 수준으로 폭락

□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2009~2014)

-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달러화의 약세로 유가는 꾸준히 상승
 - 양적완화 이후 유가는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에는 배럴당 120\$를 상회

□ 1970년대와 2000년대의 유가 변동요인에는 차이

- 1970년대의 유가 급등이 주로 공급측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유가 급락은 수요측 요인에 기인
 - 현재의 유가 급락은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유가 변동요인 비교〉

년도	내용
1970년대	중동의 정치적 불안 등에 따른 석유공급 감소 (공급측 요인)
2008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 (수요측 요인)
2014년	석유 공급과잉과 수요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 (복합적 요인)

3. 유가하락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

□ (미국) 소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에너지 분야에는 악영향

- 소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운송산업, 농업, 제조업 등도 유가하락에 따라 마진폭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유가하락은 미 소비자들에게 약 750억\$(총소비의 0.7%)의 여유자금 제공 효과가 있으며 2015년 성장률에 0.2%p 기여 예상 (기획재정부, 2015)
- 반면 에너지기업 및 세일산업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
 - 세일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에너지분야 투자 감소와 이에 따른 GDP 감소 예상

□ (유럽) 유가하락과 유로화 약세는 유럽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

-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현재의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경우 0.3~0.4%p 성장률 개선 요인으로 작용 전망 (기획재정부, 2015)
 - 다만 유가하락이 유로존 디플레이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일본) 유가하락에 따라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긍정적인 효과는 상쇄

- 단기적으로는 절대적인 원유수입 비용 감소에 따라 실물경제 회복이 일부 예상되지만 엔저 등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
 - 엔화약세에 따른 원유수입 부담 완화 및 물가상승세 둔화로 소비 진작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엔저 정책 및 디플레이션 압력 가중으로 효과는 미미

신흥국

□ (중국) 국제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자

- 2014년 기준 원유 최대수입국(3억 800만t)으로 유가하락세가 본격화된 작년 9월부터 원유 수입량이 급증
 - 국제유가 10% 하락 시 중국 GDP는 0.15%p 상승, 무역수지 흑자는 0.2~0.5%p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5%p 하락 전망 (기획재정부, 2015)
- 주요 제조업의 생산비 절감에 따른 가격 및 수출경쟁력 제고 가능
 - 투입비용 감소에 따른 기업수지 개선 및 투자증가와 더불어 물가하락에 따른 가치분소득 증가로 소비 활성화 예상

□ (인도) 실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 총수입액의 1/3이 원유수입액에 해당하여 유가하락은 무역수지 개선, 재정적자 부담 완화에 일조
 - 국제유가가 10\$ 하락할 때마다 성장률 0.1%p, CPI 0.2%p 제고효과 및 도매물가 0.5%p 하락 전망 (기획재정부, 2015)

□ (러시아, 중동) 유가하락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

- 러시아는 원유가스산업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50%, 수출의존도가 67% 수준이며 GDP 비중도 18% 수준에 달함 (2012년 기준)
 - 유가하락에 따라 경제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환율·금리가 급등하고 자본유출이 심화되는 등 실물·금융시장 전반에 불안 확대
- 중동은 GDP에서 석유부문의 비중은 1/3, 재정수입의 1/2 이상을 차지
 - 유가하락은 주요 산유국의 재정수입 감소 및 성장률 악화로 직결

4. 유가하락의 국내 영향

유가하락의 파급경로

□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

- 국제유가 하락은 수입물가 하락과 이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
 -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기 개선으로 이어짐
- 실제로 유가하락이 본격화된 이후 교역조건은 크게 개선되는 모습
 - 유가하락이 본격화된 2014년 9월 이후 순상품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이 모두 개선되는 효과

* 순상품교역조건 :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

** 소득교역조건 :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

〈교역조건 추세〉

(단위: \$/배럴, 2010=100)

거시변수	2014.7	2014.8	2014.9	2014.10	2014.11	2014.12
유가(두바이유)	105.71	101.85	96.99	86.72	76.73	60.39
순상품교역조건	89.19	89.64	90.31	90.48	92.40	93.37
소득교역조건	119.61	111.56	117.30	127.51	123.64	133.86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소비자·생산자물가 하락에 따른 소비·생산증가

- 직접적인 수입물가 하락에 따라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가 동반 하락
 - (가계) 소비자물가 하락에 의한 소비심리 개선 및 소비 증대 효과
 - (기업) 생산자물가 하락에 의한 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생산 증대 효과
- 소비자물가지수는 하락세, 생산자물가지수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유가하락에 따라 양 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추세〉

(단위: \$/bb, 2010=100)

거시변수	2014.7	2014.8	2014.9	2014.10	2014.11	2014.12
유가(두바이유)	105.71	101.85	96.99	86.72	76.73	60.39
소비자물가지수	109.26	109.45	109.38	109.05	108.83	108.82
생산자물가지수	105.68	105.57	105.19	104.45	104.13	103.11

*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리스크 감소에 따른 통한 투자심리 개선

- 국제유가 하락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여력을 확대하고 리스크를 감소시켜 투자가 증대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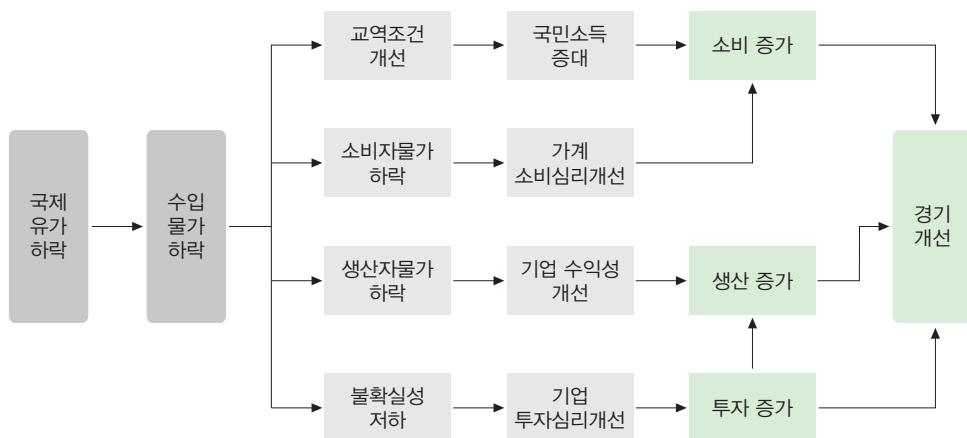
〈설비투자지수 추세〉

(단위: \$/bb, 2010=100)

거시변수	2014.7	2014.8	2014.9	2014.10	2014.11	2014.12
유가(두바이유)	105.71	101.85	96.99	86.72	76.73	60.39
설비투자지수	111.4	90.7	100.2	99.8	112.5	125.8

* 출처: 국가통계포털

〈국제유가 하락의 국내경기 파급 경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유가하락은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 국제유가 하락은 GDP와 민간소비, 소득을 상승시키는 효과

–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1년 동안 GDP가 0.19~0.2%p, 민간소비는 0.17%p, 소득은 0.3%p 상승 (기획재정부(2015), 현대경제연구원(2014))

〈유가 10% 하락시 국내 경제 영향〉

(단위: %p, 억달러)

거시변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평균
GDP	0.19	0.48	0.69	0.80	0.54
민간소비	0.17	0.46	0.66	0.77	0.52
경상수지	58.6	58.7	57.3	46.5	55.3

*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 유가하락에 따라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동반 회복 조짐

– 실제로 소비, 투자 등의 내수부분은 4분기에 0.68%p, 0.02%p씩 상승

□ 긍정적 영향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실제 재화 및 서비스 가격 하락이 필요

- 기업 입장에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유인 존재 (가격의 하방경직성)

– 실제 유가하락의 효과가 기업에만 한정되고 가계에 전이되지 않는 경우 내수 개선이 예상 보다 부진할 가능성

□ 유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제기

- 최근의 유가 하락은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이 서로 맞물린 상태로, 수요측 요인에 의한 유가 하락은 디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 지속적으로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경우 디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

업종별 영향

□ (기계) 내수 증대 및 수출 활성화 기대

- 미국과 유럽 경기 안정 및 신흥국 수요 회복 등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더불어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수 증대 예상
 - 유가하락에 따른 제조업 가동률 증가와 주요 수출처인 미국, 유럽, 중국 등 경기 활성화로 내수 및 수출 증대

〈2013~2015년 일반기계 수출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불)

거시변수	2013년	2014년	2015년 (예상)
수출액	46,415 ($\Delta 3.1\%$ p)	48,000 (3.4% p)	49,640 (3.4%p)
수입액	34,375 (8.7%p)	33,684 ($\Delta 3.0\%$ p)	35,200 (4.5%p)
무역수지	11,700	14,316	14,440

* 출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2015), ()는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을 의미

□ (자동차) 소비자 수요 증가 예상

- 유가하락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로 개인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제조공정상 유가하락이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연료비 감소에 따라 중·대형차 위주로 판매 증가 예상

□ (섬유, 플라스틱) 제조원가 하락으로 원가부담 완화

- 제조 공정에서 석유의존도가 절반 이상으로, 유가하락은 직접적으로 원가 부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섬유) 가격협상력(Market Power)이 강하여 제품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 가능
 - (플라스틱) 원가하락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단가 인하 폭이 작음

□ (석유화학) 주요제품 판매가의 동반하락으로 수익성 악화 예상

- 원료 수입가격 하락으로 생산비용 감소 효과가 존재하지만 판매가격도 낮아지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
 - 유가하락은 에틸렌과 프로필렌(PP)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가격까지 동반 하락시켜 수익성에 악영향
 -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로 가동률이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품단가 인하로 업계에 부정적

〈각종 석유화학제품 가격추이〉

(단위: \$/톤, \$/배럴)

거시변수	2013년	2014.1Q	2014.2Q	2014.3Q	2014.4Q
유가(두바이유)	105.33	104.47	105.93	101.61	73.48
에틸렌	1,356	1,438	1,450	1,485	1,216
프로필렌	1,456	1,487	1,503	1,504	1,374

* 출처: 국가통계포털

□ (건설) 중동국가의 발주규모 축소로 수주에 악영향

- 주요 해외수주처인 중동의 재정 악화로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정유시설 등의 수주 지연에 따른 악영향 불가피
 -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 타누라 정유공장의 입찰이 1년간 연기되고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 또한 발주 일정이 연기
 - 2014년 기준 중동의 해외공사 수주액은 47.5%로 전체 수주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

〈2012~2014년 해외공사 수주액〉

(단위: 억\$)

거시변수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수주액	649.0 (100.0%)	652.1 (100.0%)	660.1 (100.0%)
중동 수주액	369.2 (56.9%)	261.4 (40.1%)	313.5 (47.5%)

* 출처: 국토교통부

□ (신재생에너지) 저유가에 따른 위축 불가피

- 신재생에너지는 고유가시대에 석유자원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등장
 -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석유에 비해 높은 편으로, 유가가 하락할 경우 단가격차가 더욱 커져 수요 위축 가능성
 -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는 정부보조금 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보조금 감소 및 이에 따른 기업투자 축소 가능성

□ (조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

- 선박 운행비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해양플랜트 부문 위축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
 - (긍정적) 해운사의 자금력이 높아져 해당 업종 수익성 회복의 반사이익
 - (부정적) 산유국의 석유 채굴유인 및 신규투자 약화로 해양플랜트 수주 감소

<유가하락의 업종별 전망>

업종명	영향	평가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동률 증가로 내수 활성화 예상 -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활성화로 수출증대 예상 	긍정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비 감소에 따른 자동차 구입 수요 증가 -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차 위주의 수요 증가 예상 	긍정적
섬유, 플라스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하락이 직접적으로 원가 절감으로 이어짐 - 가격협상력이 강하여 제품가격 전가 가능 	긍정적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는 수요증가로 가동률 상승 - 장기적으로는 제품 단가 인하로 수익성 악화 	부정적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의 재정 악화에 따라 해외수주 악영향 - 실제 2015년 예정된 주요 공사가 연기 	부정적
신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가 높아서 유가 하락시 생산 위축 - 보조금 축소 및 기업투자 축소 가능성 	부정적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비용 감소에 따른 현금흐름·수익성 개선 - 산유국의 해양플랜트 등 관련설비 발주 감소 	보합세

향후 전망

□ 2015년 1분기~2분기를 저점으로 유가의 점진적 회복을 예상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석유소비 증가와 더불어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노력에 따라 유가가 70~80달러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과거 사례를 검토해 볼 때 현재의 유가하락세는 다소 과도한 것으로 평가 (기획재정부, 2015)
- 전 세계의 주요 기관들도 60~80달러의 유가를 예상
 - 해당 수준에서 전세계 석유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 (현대경제연구원, 2014)

〈전 세계 주요기관의 유가 예측〉

(단위: \$/배럴 (두바이유 기준))

전망기관	2014.1Q	2014.2Q	2014.3Q	2014.4Q	2015 (예상)
기획재정부					63.31
하나경제연구소					75~80
EIU*	104.44	106.07	101.56	74.35	79.19
CERA**					63.26
PIRA***					75.83

* 출처: 각 기관

□ 유가 상승시 각 산업의 생산비용 증가는 불가피

-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생산비 등의 증가로 일정 이상의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
 - 각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최종제 가격의 상승이 예상
 - 다만 석유화학, 건설 등의 분야는 유가 상승으로 수익성 제고 및 수주 증가가 예상되어 호재

*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CERA;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 PIRA; 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

5. 정책적 시사점

□ 국내 거시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투자지원 확대 필요

- 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 GDP와 민간소비, 소득상승 효과 제고 노력
 -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하락에 따른 소비자 실질소득 상승이 필요
 - 생산비 하락분이 기업에게 모두 전용되지 않고 실질적인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체계 등의 개편 추진
- 중소기업 투자수요 확대 등에 부응할 필요
 -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 절감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여력과 투자수요가 증대되는 효과 존재
 - 이에 부응하여 정책당국 및 시중은행 등과 연계하여 시설자금 저리융자·각종 투자 등의 확대 지원

□ 디플레이션 및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

- 다른 측면에서 저유가는 디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저성장을 야기할 우려
 - 지속적인 물가 하락은 실질임금 하락과 소비 축소,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 고용 위축에 따른 장기침체가 우려
 - 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유가하락에 의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대응전략 마련
 - 석유화학·건설·신재생에너지 등 유가하락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 등 유도

참고문헌

1.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외 4(2015),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하나은행경제연구소(2014), “향후 유가 전망과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 분석”
3. KB경영지주 경영연구소(2014),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 및 향후 전망”, KB 지식비타민 14-92호
4. 현대경제연구원(2014),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Weekly Economic Review 14-41호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2015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4, No.7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2014), “2015년 일반기계 수출입 전망”
7. 산업연구원(2015),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15년 3월호
8. IMF(2015), “World Economic Outlook”, 2015.1
9. OPEC(2013, 2014), “Annual Report 2012”, “Annual Report 2013”
10. OPEC(2015), “Monthly Oil Market Report”, 2015.3

참고 웹사이트

1.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3. 국토교통부 통계시스템 (stat.molit.go.kr)
4. 외환은행 환율정보 (fx.keb.co.kr)
5. OPEC Historical Production Data (www.opec.org/opec_web/en/data_graphs)
6. Bloomberg Energy & Oil Prices (www.bloomberg.com/energy)
7.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www.eiu.com)
8. CERA;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www.cera.com)
9. PIRA; 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 (www.pira.com)